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창작 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

- 실용음악 즉흥연주 역량 중심으로

김관진

동원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 kimkj00@tw.ac.kr

The Research to realize creative education in the 2022 revised music curriculum Society

- Focusing on improvisation skills of applied music majors

Kwan-Jin Kim

Dept. of Applied Music, Tongwon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될 2022 개정 교과과정에서 음악과 교육과정의 창작영역이 분리 적용됨에 따라 음악 교과와 창작 영역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실용음악 창작교육을 구현함에 있어 실용음악 즉흥연주 수업과 현 개정 교육과정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실용음악 교육과정에서 즉흥 연주 교수법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 서론

국민소통채널에 탑재된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교육부, 2022b)의 ‘교과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음악 교과 교육과정은 음악 교과의 본질과 가치를 중심에 두면서 “인간은 감성, 창의성, 자기주도성을 발휘하여 음악 활동을 하며 평생의 삶 속 공동체 내에서 소통한다.”라는 생활 속 음악 활동을 근간으로 설계 되었다. 음악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제1차~3차 교육과정에 ‘창작’ 영역을 독립 영역으로 설정한 바 있으며, 제4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까지는 하위 범주에 창작 영역의 하위 능력을 제시하는 해 왔다.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따른 영역 설정은 다음과 같다.

[표 1] 교육과정 시기에 따른 영역

차시/연도	영역 설정 내용
1차시	· 가창, 기악 연주, 감상, 음악의 기초 이론, 창작
2,3차시	· 가창, 기악, 창작, 감상
4차시	· 기본 능력, 표현 능력, 감상 능력
5차시	· 표현, 감상
6차시	· 이해, 표현, 감상
7차시	· 간단한 악보로 나타내기
2007 개정	· 활동, 이해, 생활화
2009, 2015	· 표현, 감상, 생활화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로, “영역은 삶 속 음악 활동의 특성을 근간으로 하여 목소리와 악기 등으로 연주하고 음악을 감상하며, 생각한 것을 음악으로 창작하는 활동으로 구성 된다[1].

2015 ‘생활화’ 영역을 삭제하고, ‘표현’ 영역의 내용을 ‘연주’와 ‘창작’ 영역으로 분리하여 대영역으로 설정, 강조한 것이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가장 특징이다.

교육부에 고시된 창작 영역의 전반적인 내용을 중점으로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과 비교를 통해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창작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2022 개정 음악 교과서의 창작 영역의 교수·학습에서 실용음악 전공자들이 주안점을 두어야 할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2022 음악과 교육과정의 창작 영역을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표현 영역 중 음악 만들기 관련 내용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이점이 나타났다.

2.1 창작 영역의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핵심 아이디어’, ‘내용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핵심 아이디어’는 “영역을 아우르면서 해당 영역의 학습을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해당 영역 학습의 초점을 부여하여 깊이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는 것”으로 정의된다[2].

2022 음악과 교육과정의 창작 영역의 핵심 내용을 2015 개정 음악 교육과정과 2022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표현 영역에 제시된 성취기준 중 ‘노랫말, 말붙임새, 리듬꼴, 장단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모두 ‘음악 요소의 활용’과 같이 포괄적인 표현으로 성취기준을 진술하였다.

둘째,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창작 영역에서는 창작한 결과물의 기보와 관련된 학습 내용을 성취기준으로 명시함으로써 음악 기보 학습이 창작 활동에 필수적으로 따라야 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지식·이해’ 요소에 ‘느낌, 상상, 아이디어, 의도’ 등과 같은 창작의 소재와 동기 요소를 제시하고, 이를 포함하여 창작 영역의 성취기준을 개발하였다.

[표 2]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창작 영역

학교급	창작영역
초	· 음악 요소의 활용 · 악곡의 일부를 바꾸어 표현하기
중	· 음악의 요소와 특징 활용 · 간단한 형식의 음악 만들기 · 조건에 따라 바꾸기
초/중	· 느낌과 상상의 즉흥 표현 · 느낌과 아이디어의 표현 · 의도와 아이디어의 적용, 창작
성취기준	· (초3~4) 간단한 악보로 나타내기 · (초5~6) 기초적 기보의 활용 · (중학교) 오선보, 정간보 등의 기보법의 활용

학급 초/중등학교 창작 영역에서는 음악적 상상력을 창의적으로 발휘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간단한 형태의 창작물을 만들고 표현함으로써 음악적 자신감과 주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등학교 창작 영역에서는 음악의 고유한 방식과 원리에 따라 다양한 소재를 연계·융합하여 창작할 수 있음을 알고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적 상상력과 의도를 창의적으로 마음껏 발휘하고 활동의 과정과 결과물을 공유함으로써 창의적인 표현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1.1 창작 영역의 핵심

음악 창작 영역의 핵심 요소는 인간의 감정과 느낌, 상상 등을 즉흥적으로 표현하는 즉흥적 성격이 존재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도 ‘즉흥성’의 발현과 이를 창작 활동 과정 속에서 구현해 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왔다. ‘즉흥’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는 감흥, 또는 그런 기분”으로 정의된다[3].

즉흥연주를 “즉흥적인 신체 표현, 즉흥 연주 등 음악적 아이디어가 매개체(악보)를 통하지 않고 바로 몸짓이나 목소리, 악기 등의 표현 수단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4]. 즉흥 표현, 즉흥 연주에 관한 교육과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즉흥 연주 교육과정 내용

차시/연도	영역 설정 내용
6차시	· 음악과 교육과정: (5, 6학년/ 중학교) 즉흥적으로 리듬과 가락을 지어 표현하기
7차시	· 음악과 교육과정: (3, 4학년) 짧은 리듬꼴을 즉흥적으로 표현하기, (5, 6학년) 단순한 리듬과 가락을 즉흥적으로 표현하기, (중학교) 리듬과 가락을 즉흥적으로 표현하기, (고등학교) 악곡을 즉흥적으로 표현하기
2007	·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3, 4학년) 즉흥적으로 표현하기, (5, 6학년) 친숙한 악곡의 일부를 변형하여 즉흥 표현하기, (중학교) 즉흥적으로 표현하기

2.1.2 즉흥연주에 대한 정의

음악의 창조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즉흥성”이다. “즉흥연주(Improvisation)는 미리 준비된 악보나 스케치에 의하지 않고 연주에 의하여 직접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주를 말한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다[5].

음악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음악 양식으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음악 장르에서 그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음악의 탄생과 함께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자연적으로 발생, 발전해온 것이며, 기보법의 발달로 그 주법은 기보된 음들의 표기로 정착 되었으며 세대간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즉흥연주는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진 형식이 아니라 인간이 표현을 시작 하면서 함께 발전해온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14세기 이후부터 서양음악에서 즉흥연주가 이루어졌으며, 실용음악에서의 Jazz, Blues에서 이어온 즉흥연주 의미는 기보되어 있는 코드와 악보에 의해 연주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기보된 즉흥연주를 활용하여 교육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즉흥연주에 대한 훈련과,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이해와 교육이 필요하다.

2. 결론

인간의 음악활동은 하나의 연행행위이며 하나의 사회적 의사소통으로 정의된다. 이 연행의 개념은 음악을 포함한 공연 예술을 비롯해, 현대 언어학에 있어 발화행위의 수행능력을 의미하는 광의적인 개념으로서, 인간 의사소통 체계에 내재된 상징과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요소이다[5].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 역량은 미래, 변화, 삶, 진로, 역량, 이해, 핵심, 연계, 다양, 자율, 자기 주도, 포용, 협력, 창의 등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주요 교육 방향으로 제시하고,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면서 학생의 현재와 미래 삶에 필요한 역량 함양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정 교육과정의 창작 교육 실현을 위하여 창작 영역에서의 즉흥연주의 중요성에 대하여 2015 개정 음악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비교를 통해 변화 양상을 살펴 보았다.

인간의 목소리와 악기 등으로 연주하고, 음악을 감상하며, 생각한 것을 음악으로 창작하는 활동으로 “연주-감상-창작” 세 영역에 따른 음악 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창작 영역에서 가장 핵심 아이디어는 즉흥연주 활동이다. 즉흥연주는 음악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문헌, 악보, 체계적인 교육환경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이루고자 하는 창작 교육이 실현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의 실용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즉흥연주 교수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교재와 다양한 교수법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유창완 외,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지향적 체육·예술 교과 군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교육부·인천대학교 정책 연구, 교육부-용역-2020-10, pp. 4, 2021년.
- [2] 박지현 외,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최종안) 개발 연구”, 교육부·광주교육대학교 정책 연구, 교육부-용역-2022-11, (일려두기), 2022년.
- [3] 즉흥,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검색일자: 2023.10.21.
- [4] 고유신, “이야기를 활용한 음악 교과의 즉흥 표현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6, 2007년.
- [5] 박신준, “음악대사전”, 세광출판사, pp. 1360, 1982년
- [6] 김책, “현대 한국재즈 즉흥연주의 정격성 의미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pp. 3, 2013년.